

제주 조천지역의 근대 민족운동 형태의 변화과정*

신 소 연**

- I. 서론
- II. 조선 말기 조천지역 유림의 학맥과 유학의 성격
- III.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조천지역 유림의 가계분석을 통한 민족 항일운동의 변화과정
- IV. 일제강점기~미 군정기 조천김씨 집안을 통해 본 민족 항일운동의 변화과정
- V. 결론

국문초록

지금까지의 4·3 연구는 4·3을 1947년 전후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로 시간을 한정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절된 시기 구분은 4·3 관련 인물, 특히 무장대 혹은 그들을 도왔거나 도왔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전 행적을 고려하여 그 의도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제주를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한다는 긍정적 목적하에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 사안이 얽혀있는 4·3의 갈등과 비극성을 덮고, 단순히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데만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019년도 제주4·3평화재단 4·3학술연구사업 지원금으로 수행한 연구임;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20).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discipler1201@gmail.com)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민족항일운동이 해방 직후의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었고, 그들 중 일부가 4·3의 피해자가 되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조천지역과 조천김씨(김해김씨 삼현파 이동문중)를 중심으로 검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천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조천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들 집안의 후손에게서 많은 수의 민족항일운동가가 배출했다는 점이다. 둘째 김명식, 고순흙, 김문준 등의 조천지역 출신 활동가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제주도의 초창기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교육운동, 노동운동에서 두각을 보이고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점이다. 셋째, 1920년대 이후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의 활동이 제주 전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고, 소년운동, 여성 계몽운동, 신좌(조천)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소비조합운동 전개와 신좌문고 운영, 노동야학이 활발히 실시되었으며, 일제 경찰들이 이들을 주시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947년 3·1 발포사건이 일어난 후 읍면별 항의 집회·시위 상황을 살펴보면 장 먼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고, 조천면의 시위행렬의 참석인원이 2,000~3,000명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조천중학원 교사들과 조천 출신 활동가들이 4·3 당시 군정들에 의해 특별히 표적이 되었던 점이다.

이를 위해 조천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사회운동 형태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았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천만세운동 등 제주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일제강점기 조천지역의 민족항일운동의 연원을 조선 말기의 제주도 유림의 사상적 특징에서 찾아보았다. 3장에서는 조선 말기의 조천지역 유림의 후손과 제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림의 사상이 후세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조천김씨가를 중심으로 친인척관계의 인물들을 검토하여 1920년대~미 군정기의 조천지역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저항적 성격이 조선 말기의 유림의 학맥, 조천만세운동, 일제강점기 학교설립운동, 일본에서의 노동운동들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천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저항운동의 기반사상이 유교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주체가 유림에서 근대학문을 수학한 청년지식인들로 바뀌었지만 아들과 손자에게로,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민족정신의 맥락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물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항일운동과 4·3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4·3의 발생 원인을 주로 해방 후부터 주목했던 것에서, 조선 말기 유림의 민족정신, 일제강점

기 제주와 일본에서의 저항운동이 4·3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4·3 무장대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제어 : 제주 항일운동, 제주 사회주의 운동, 조천 유림, 유배인, 4·3 배경

I. 서론

근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공권력이 자행한 학살의 문제를 국가 내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인권과 평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¹⁾ 학살의 기억을 안고 사는 이들에 대한 관심 진작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다. 제주 4·3의 경우에서도 선구적인 활동과 연구 및 증언 채록을 해 온 선배들의 노고와 도민들의 염원 덕분에 특별법 제정, 조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내왔다. 과거사의 바로잡기 과정에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받는다. 2005년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해 유족들에 대한 배상, 후유장애인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4·3의 과제가 모두 일단락되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평화라는 도덕적 가치 아래, 복합적인 사안이 얽혀있는 4·3을 순조롭게 매듭짓기 위해 단순히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에만 관심을 쏟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4·3 연구는 4·3을 1947년 전후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로 시

1) 2019년 10월 11~20일 오키나와에서 『平和への思い』(주최: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Okinawa Peace Assistance Center)란 주제로 캄보디아, 타이완, 오키나와, 베트남, 한국의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과거 학살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기억, 발신, 교류, 전승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2020년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기를 한정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절된 시기 구분은 4·3 관련 인물, 특히 무장대 혹은 그들을 도왔던 인물들의 일제강점기의 행적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의도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²⁾

4·3 당시 남로당에 관련된 자, 무장봉기를 일으킨 자, 이를 동조하거나 도운 이들은 현재도 국가에 따른 원호나 위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제주 4·3특별법 제정에서 정의 내려진 ‘올바른 죽음’은 무장봉기 등 반정부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동원되었던 군·경찰·우익단체 토벌대의 죽음이었다. 이를 제외한 죽음은 ‘빨갱이’, ‘폭도’의 ‘반사회적’이고 ‘옳지 않은 죽음’으로 규정 지어졌다. ‘누가 올바른 희생자인가?’라는 질문³⁾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죽음’의 당사자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이들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시 4·3에서 ‘옳지 않은 죽음’으로 치부되는 이들이 반공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국가의 국민 선택과정⁴⁾에서 배제된 인물들이 아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단된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민 선택’ 과정을 거부한 이들의 사상적 연원은 어디서 왔을까. 특정 지역에서의 집단적 저항 분위기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활동이 해방 직후의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었고, 그들이 4·3의 피해자가 되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 범주를 조천지역에 한정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⁵⁾

2) 박찬식의 『4·3과 제주역사(개정증보판)』, 각, 2018; 김창후,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진인진, 2017에서는 일제강점기 활약한 인물 연구를 통해, 4·3의 배경과 성격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3) 高誠晩, 『<犠牲者>のポリテックス』,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7, pp.40-55.

4) 김동현,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2019, 48-49쪽.

5) 본 연구에서 조천지역이라 칭하는 지역적 범위는 현 조천읍에 해당하는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선흘리, 외산리, 대흘리, 와흘리, 교래리를 포함하지만, 각종 표에 표기한 지명에서의 조천은 조천리에 국한된다. 역사적 시기마다 행정구역상 지명의 변화가 있기에 이를 조천지역이라 표기하였다. 조천지역의 시기별 지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416년(태종 16) 제주는 1목 2현 3읍 체제(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4백 년간 유지되었다. 이 당시 조천읍은 좌면에 해당한다. 1874년(고종11) 제주목 좌면을 신좌면과 구좌면으로 나누어서

첫째, 조천김씨가(김해김씨 삼현파 이동문중 치현계 중심, 앞으로 조천 김씨가로 같음함)를 중심으로 조천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들 집안의 후손에게서 많은 수의 활동가 배출했다는 점이다. 둘째 김명식, 고순흙, 김문준 등의 조천지역 출신 활동가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제주도의 초창기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교육운동, 노동운동에서 두각을 보이고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점이다. 셋째, 1920년대 이후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의 활동이 제주 전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고, 소년운동, 여성 계몽운동, 신좌(조천)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소비조합운동 전개와 신좌문고 운영, 노동야학이 활발히 실시되었으며, 일제 경찰들이 이들을 주시했다는 점이다.⁶⁾ 마지막으로 1947년 3·1 발포사건이 일어난 후 읍면별 항의 집회·시위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고, 조천면의 시위행렬의 참석인원이 2,000~3,000명에 이른다는 점,⁷⁾ 그리고 조천중학원 교사들과 조천 출신 활동가들이 4·3 당시 군경들에 의해 특별히 표적이 되었던 점이다.⁸⁾

조천지역은 신좌면이라 이름하였다. 1896년 7월 칙령 제36호로 인해 1895년 제정되었던 제주부(1부 3군체제)가 폐지되고 제주목으로 환원되어 새로이 전라남도 관할이 되었다. 일제의 영향이 강해졌던 1906년 제주목이 폐지되고 3군체제(제주군, 정의군, 대정군)로 변경되었다. 이때 제주군은 중면, 구우면, 신우면, 구좌면, 신좌면 5면이 되었고, 현 조천읍은 신좌면이었다. 1914년 4월 총독부령 제111호로 부, 군과 면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단행되어, 정의군과 대정군이 제주군에 병합되어 단일군체제를 이뤘고, 1915년 총독부령 제44호로 제주군이 폐지되고, 제주도(濟州島)로 개편되어 島制가 실시되었다. 제주지방은 1도 13면이 되었고, 1931년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지정면이던 제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면의 명칭을 소재지 부락의 명칭을 따서 개칭하였다. 이때 신좌면은 조천면이 되었다. 1946년 8월 1일자로 道制실시로 제주도는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으로 나뉘어 2군 1읍 12면의 체제가 되었다. 1955년 9월 1일부로 제주읍은 제주시로 승격하였고, 1985년 조천면이 조천읍으로 승격하였다(부만군,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70쪽; 105-107쪽; 163-165쪽; 246-247쪽;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역사문화지』, 2011, 147-153쪽).

6) 박찬식, 앞의 책, 2018, 64-65쪽.

7) 박찬식, 앞의 책, 2018, 204쪽.

8) 제주4·3연구소, 『4·3증언자료집1-이제사 말함수다』, 1989, 54쪽, 69쪽, 117쪽, 149쪽 등에서 각기 다른 증언에서 조천중학원에 다녔던 사람은 다 자수하라고 해서 함덕국민학교까지 갔다는 증언과 북촌 출신이기 때문에 살려고 한국전쟁 시 자원입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왕의 연구성과에서 조선 말기 제주 유림의 학맥 연구, 문집 연구, 조천지역의 김해김씨 삼현파 집안의 민족운동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조선 말기 제주 유림과 1919년 조천만세 운동 및 일제강점기 제주의 사회운동을 살피려는 시도가 있었다.

첫째, 조선 말기 제주 유림 연구는 주로 제주로 유배 온 육지 지식 인들과 제주 유림의 교유관계를 다룬다. 면암 최익현의 제주 유배기, 그의 교학 활동으로 인해 유배인과 제주지역 유림인사 사이에 사제 연원의 계보가 생겼으며, 이 과정에서 기호학파의 사상적 질서 체계가 제주도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⁹⁾ 또한 조선왕조의 체제와 문화를 理로 보는 한편 외세를 氣로 해석하여 자존적 의식을 강조한 면암의 사상과 제주 유림의 성격을 연관 지어 살폈다.¹⁰⁾ 이러한 연구는 제주에서의 면암의 기호학과 사제 계보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후 연계된 연구에서 면암과 교유한 제주유림의 면암의 제주학 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문적 수수 관계, 일정한 계보, 사상적 정체성이 유지를 '학통'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면암과 관련된 제주지역 유림을 제주학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또한 송시열 대에서 내려오는 의리론에 입각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4·3 무장봉기의 중심에 있던 金達三(본명: 李承珍)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 조선 말기의 유학 사상과 4·3이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¹²⁾ 아울러 최익현의 가르침과 학통을 이어받은 유림의 활동이 제주의 3·1운동인 조천만세운동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¹³⁾

둘째, 제주 유림의 문집 연구는 주로 개별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 제주 유림인 부해 안병택, 심재 김석익, 해은 김희정에 대한

9)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9호, 탐라문화연구소, 1987.

10) 고창석·양진건, 앞의 논문, 1987, 274-275쪽.

11) 강동호·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濟州學統) 연구」, 『탐라문화』 48호, 탐라문화연구원, 2015, 115쪽.

12) 고창석·양진건, 앞의 논문, 1987, 286쪽.

13) 강동호·양진건, 앞의 논문, 2015, 132-134쪽.

인물 조명과 그들의 문집에 관한 연구가 있다.¹⁴⁾ 다만 생애사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그들의 사상이 제주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본 연구에서 좀 더 다뤄볼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 조천지역 김해 김씨집안의 항일정신에 대한 연구가 있다. 1919년 조천만세운동의 배경을 소위 ‘조천김씨’라 일컫는 ‘김해김씨 삼현과 조천리 이동 문중’의 인물 연구를 통해 조천지역 내에서의 세대를 관통하는 활동성을 일면 보여주었다.¹⁵⁾ 또한 제주의 근대지식인이 섬으로 유배 온 면암 최익현, 운양 김윤식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의식이 깨어났음을 설명하였다.¹⁶⁾ 아울러 조천지역 출신인 고순흙, 김문준 등 명망 있는 항일운동가에 대한 연구도 있다.¹⁷⁾

기왕의 연구성과를 참조하고, 유림들이 남긴 문집을 검토하여 2장에서는 조천만세운동 등 항일활동을 주도했던 일제강점기 조천지역의 민족항일운동의 연원을 조선 말기의 제주도 유림의 사상적 특징에서 찾아보겠다. 3장에서는 조선 말기의 조천지역 유림의 후손과 제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림의 사상이 후세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겠다. 4장에서는 조천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친인척 관계의 인물들을 검토하여 1920년대~해방 직후(미 군정기)의 조천지역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을 살펴보겠다. 이로 인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조천지역에 만연했던 항일분위기가 해방 직후부터 4·3 발발 이전까지 제주민들의 인식과 집단행동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보려 한다.

가까이 살지 않으면 친척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친족 연구와 활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

14) 김새미오, 「구한말 말기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韓國漢文學研究』 53호, 한국한문학회, 2014; 「구한말 제주 지식인 심재(心齋) 金錫翼의 시문학 고(考)」, 『濫知論叢』 Vol.48, 온지학회, 2016;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海鰲) 김희정(金羲正)의 삶과 문학」, 『탐라문화』 54호, 탐라문화연구원, 2017.

15) 김동전,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탐라문화연구소, 1996.

16)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7)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14쪽.

기 4차 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가입 동기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공산당 가입 동기가 개인적, 집단적 교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는 사회 전반적 상황과 지역의 분위기, 친족 관계와 교우 관계, 학업의 내용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특질은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가 매우 강하고, 학교와 직장, 공장, 상점 등의 소집단 사이에서 이 같은 유대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보인다. 특히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소위 '웬당'이라 하는 친족과 집성촌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제주에서는 친구나 친지 간의 호혜 관계 속에서 더욱 활동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¹⁸⁾

Ⅱ. 조선 말기 조천지역 유림의 학맥과 유학의 성격

제주의 대표적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은 제주의 3·1운동이라 불린다.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도 서울에서 유학하였던 휘문고등보통학교 4학년 김장환(1902~?)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한 것이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그는 귀향한 후 숙부 김시범을 찾아가 서울의 시위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곧 제주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고, 그 거사일을 그들의 종형제이자 제주 유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소기일로 정했다.

다른 지역의 3·1 만세운동은 주로 장날에 발발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장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어 해산하거나 도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제주는 유림이었던 김시우의 기일에

18)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합본개정판)』, 한홍구 옮김, 돌베개, 2015, 241-242쪽; 제주도의 친족네트워크 소위 웬당에 대한 내용은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웬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김창민,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1995; 『호적중초와 19세기 후반 제주도 마을의 사회구조』, 역락, 2020 등을 참조하길 바란다.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당시 제주도에서 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배경도 있겠으나, 한편 기일에 모였던 조천김씨 문중과 김시우 및 그의 집안과 교유했던 제주 유림의 수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민족정신 공유하고 있었고, 김시우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기일이 민족운동의 상징성을 담기에 적합했다는 점 등도 짐작할 수 있다.¹⁹⁾ 그 근거로 1925년 조천리에 세운 琴臺를 들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⁰⁾

배동네(梨洞) 길 좌측으로 작은 언덕배기가 하나 있는데, 그 형세가 마치 비파(琴)와 같이 생겨 금산(琴山)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 산 아랫자락에는 서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 만취(晩翠)(필자 주: 김시우) 선생께서 사셨던 옛집이다. 선생은 매번 관을 쓴 성인 남자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과 더불어 소리를 길게 뽑아 시를 읊조리곤 하였다. 이 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두가 모두 훌륭한 시의 소재가 아님이 없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몇 번 거느리곤 하다가 서로 잊혀져 가는 상태에 이르르게 되었다. 급기야 문하의 여러 제생들이 선생이 사시던 옛터가 묵어감을 두려워한 까닭에, 선생의 큰아들 允煥과 더불어 돌을 갈고 대를 쌓기를 도모해 이름 짓기를 금대라 했다. 銘하여 이른다.

선생이 살아 계실 적엔 산이 높아 커 보이더니,
선생이 돌아가시자 산이 적막해져 버렸네.
돌은 닳아 없어지지 않고, 대는 우뚝 솟았으니,
우리러 볼수록 그 비명(碑銘) 더욱 뚜렷하기만 하구나.

공자(孔子) 탄생 2,476(서기 1925)년, 을축(乙丑)년 저무는 봄에 세우다.

19) 김동진, 앞의 논문, 1996, 194쪽.

20) 總弟濼樹巽/ 梨洞路左有小岡其形如琴其名琴山山下有書齋是我晚翠先生故宅也先生每與冠者五六童子六七嘯咏于此山之一木一草無非錦囊中物先生歿後山之名幾與世人相忘及門諸生恐遺墟湮蕪與先生之子允煥謀伐石築臺名之以琴臺銘曰先生存而山巍巍先生逝而山寂寂石不泐而臺兀兀仰彌高而銘歷歷(우측)孔子降生二千四百七十六年歲在乙丑暮春者建(좌측)後學金濡培書門人吳平元鑄(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http://jst.re.kr/digitalArchiveDetail.do?cid=210211&mid=RC00013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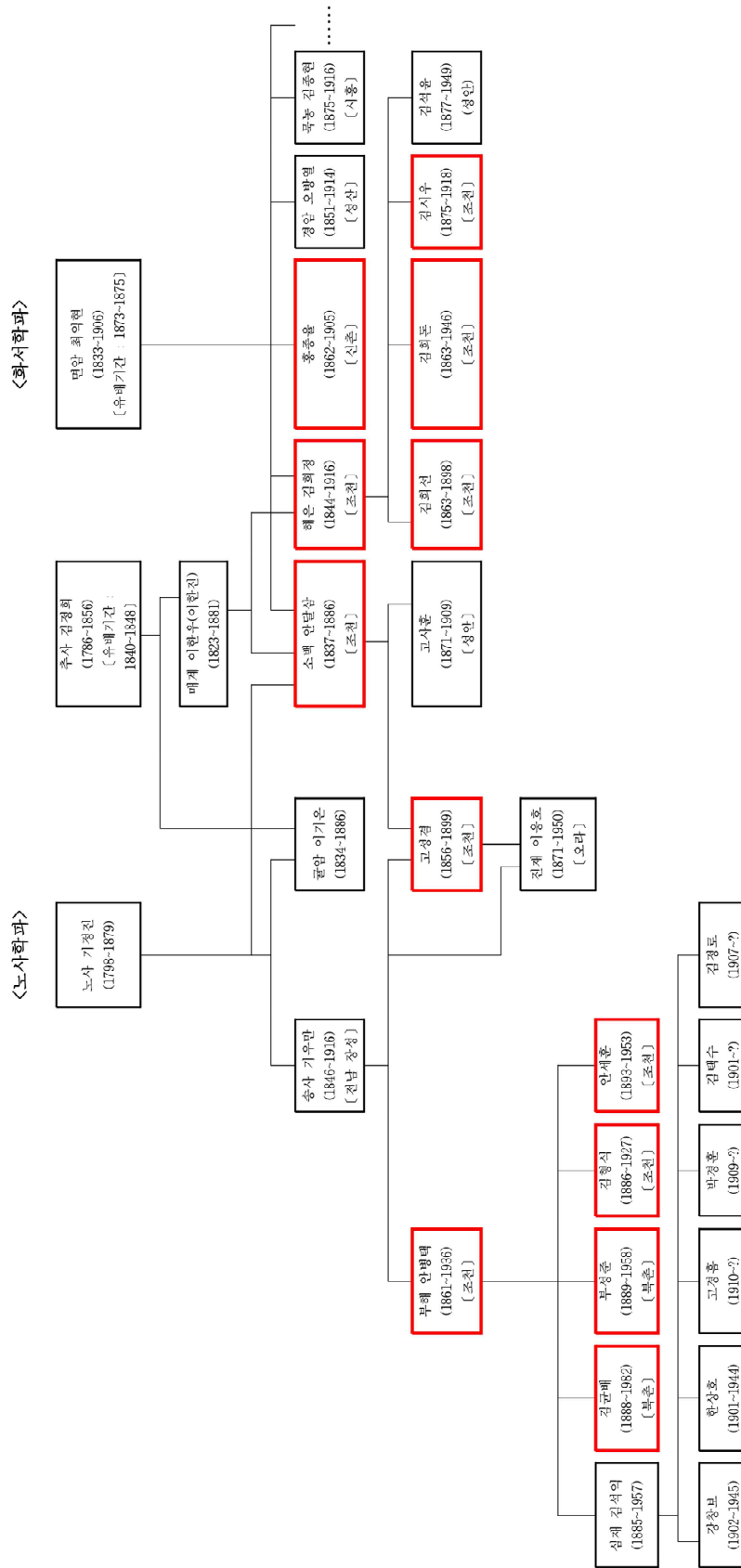
후학(後學) 김유배(金濤培) 글씨 씀,
문인(門人) 오평원(吳平元) 글씨 새김

그렇다면 조천지역의 유림이 공유했던 민족정신의 뿌리와 실행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들의 사제관계를 통해 검토해 보자. 우선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사제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로서의 만남이 아닌 생사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유림은 삶의 기본전제로 여긴다.²¹⁾ 기왕의 연구에서는 제주에서의 사제관계를 설명할 때 종유 관계란 용어를 사용한다. 학덕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육지의 고위 정객이 제주도에 유배 왔을 때 제주도 지식인들이 행하던 교육 활동의 대표적인 양식이었다.²²⁾ 따라서 짧은 시기의 교유관계, 사제관계를 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종유관계라 칭하도록 하겠다.

<그림 1>은 기존의 연구성과와 유림의 문집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계도를 그린 것이다. 그들의 학문적 뿌리를 노사학파(기정진, 기우만)와 화서학파(최익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도 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천지역 출신의 유림의 학맥을 찾는 것에 주목하였기에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출신자들은 일부 생략했으며, 조천지역 인물들은 따로 표시하였다. <그림 1>을 참조하여 조천지역 출신 유림이 어떻게 면암 최익현, 추사 김정희, 노사 기정진, 송사 기우만 등과 교유했는지를 살펴보겠다.

21) 고창석·양진건, 앞의 논문, 1987, 278쪽.

22) 강동호·양진건, 앞의 논문, 2015, 129-130쪽.



〈그림 1〉 조선 말기 제주 조천지역 유림의 학파도식

우선 <그림 1>에서 등장하는 최익현의 제자 해은 김희정(1844~1916)을 주목하자. 김희정의 집안은 조천지역의 토착세력(김해김씨 삼현과 묵동문중)이었다. 그의 고조 김일대 이래로 제주목 관아의 이방, 형방, 군관 등을 지낸 조천지역 유력층으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과 그의 아들 향유의 과거 합격과 김희정의 관직 수행으로 그 이전의 吏屬계층에서 유력한 유림층으로 지위가 변했다.²⁴⁾ 즉, 조선 말기가 되면서 조천지역 일부 가문들이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에 도전함으로써 지방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문의 자제들은 조선 말기 시기에 조천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이 미흡하였기에 선생님을 찾아 성안(城內)으로 들어와 서당을 다니거나, 이후 육지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김희정의 경우도 제주 성안에 있던 三川書堂²⁵⁾에 1882년까지 10여 년이나 출입한 것을 알 수 있다.²⁶⁾

그는 열두 살 때부터 추사 김정희(유배기간 1840~1848)의 제자였던 매계 이한진(또는 이한우, 1823~1881, 신촌)에게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다.²⁷⁾ 동시에 면암 최익현의 『사우록』에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제주

23)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 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3), 1986;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9, 1989;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탐라문화연구소, 1996; 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24), 2002; 강동호·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연구」, 『탐라문화』 48, 2015;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2016을 참조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24)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290-291쪽.

25) 삼천서당은 1735년(영조 11) 목사 김정에 의해 제주성 북동에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유생을 기숙시키는 존현당, 삼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자제를 기숙시키는 강당, 서민의 자제를 기숙시키는 장랑 등 세 채로 구성되었다. 조선후기 제주의 후진 양성에 힘썼다(디지털 제주 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1057>).

26) 김희정, 백규상 역, 『해은문집』, 제주문화원, 2014, 351쪽, “임오년(1882)에 … 삼천서당을 떠나고 … 내가 삼천서당에 동료들과 함께 거처하며 공부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27)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10-제주 어도 진주강씨, 조천 김해김씨,

출신 인물이기도 하다.²⁸⁾ 그는 1874년 31세에 면암 최익현을 만나면서 성리학 본연의 道에 대해 귀 기울이고, 스스로 명예와 이익에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⁹⁾ 동시에 그의 집안의 고문서 중 기존 과거시험 급제자답안을 뽑아 필사해 묶은 기출문제집 성격의 책자가 여러 권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아들 향유와 함께 과거 공부에도 매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최익현과 김희정의 관계는 최익현이 해배되어 돌아가고서도 유지되었고, 김희정의 사후 최익현의 아들 영조가 행장을 쓴 것에서 이들의 관계는 자식 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렇다면 제주도 민중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김희정의 명망과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운양 김윤식은 『속음청사』에서 자신의 유배 생활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다. 제주도 유배 경험을 기록한 부분에서 본인이 제주 유배 중이었을 때, 제주 온 섬이 김희정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³²⁾ 또한 조선 말기 조선 정부에서도 제주도에서의 그의 인망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85년 왜인들이 가파도에서 제주 어민 3명을 살해한 일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때 제주 사람들이 신임할 수 있는 제주 출신 관리자로 당시 서울에 있었던 김희정을 조사단에 합류시켰던 것이다. 또한 일제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2014, 68쪽, 제주교육박물관, 『국역매계선생문집』, 2016, 13쪽, 481쪽.

28) 양진건, 「朝鮮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172쪽.

29) 김희정, 앞의 책, 350쪽, “갑술년(1874)에 면암 선생을 배알하고, 비로소 성현의 도에 대한 강론을 들을 수 있었다. 이해 가을에 면암 선생을 제주성 적소에서 배알하고 처음으로 성리학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도를 믿음이 어찌 돈독하지 않았겠는가미는, 다시 명예와 이익에 끌림을 당하였으니, 다시 馮婦처럼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팔뚝을 걷어 올렸으며, 큰 기러기가 날아오면 주살을 맨 활을 쏘아 잡을 생각에 마음을 오로지 하기 어려웠다”.

30) 김일우, 앞의 논문, 2012, 285쪽.

31) 김일우, 앞의 논문, 2012, 부록 <제주시 金基洪宅 소장 고문서·고서의 조사자료 목록> 연번 1 참조.

32) 김윤식, 『속음청사』 제9권, 1898년 4월 8일자.

강점기 제주 교육운동가 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항일운동가 김문준(1893~1936)도 자신의 집안(김해김씨 감무공파) 족보를 제작할 때, 김희정을 일부러 찾아가 서문을 부탁한 일도 있었다.³³⁾

김희정은 조사단에 합류했을 때, 서울과 제주를 왕복하며 1891년 8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 책이 바로 『蹈海錄』이다. 그는 그 서문에 “조정에서 먼 곳에 사는 백성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힘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합동 조사를 하다니 젊을 때부터 나라를 위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정의를 들어왔거늘 이제 저들과 한배를 타게 되어 쓰지 못할 배움이 되고 말았으니 통곡유체(痛哭流涕·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가슴 아프게 우는 것)할 일”이라 했으며³⁴⁾, 최익현도 이 책에 발문을 적으며 무기력한 조정을 비판하고 김희정의 기개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³⁵⁾ 최익현과 김희정이 시국을 대하는 관점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정은 최익현의 가르침을 이으면서도 노사 기정진의 손자이면서 항일의병장을 지낸 송사 기우만, 영남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을 지원했던 김평묵,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박은식과도 시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³⁶⁾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제주로 돌아와서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학맥을 잇고자 노력하였다. 직접 경기도 석실서원에 가서 제향의 방법을 배워 성안에 있던 풀림서원에서 가르쳤고,³⁷⁾ 제자들을 키웠다. 김희정의 문하생으로는 농은 김희선(1863~1898), 수은 김희돈(1863~1946), 석성 김석윤(1877~1949), 만취 김시우(1875~1918)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석성 김석윤만 성안 출신이고, 그 외 언급한 인물들은 조천지역 출신이다.

이러한 스승의 영향이었는지, 김희정의 제자였던 김시우는 북경에서 문물을 체험하고, 북학을 연구하기 위해 이항로·김평묵에게서 사사 받

33) 김희정, 앞의 책, 2014, 495쪽.

34) 김희정, 앞의 책, 2014, 541쪽.

35) 김희정, 앞의 책, 2014, 564-566쪽.

36)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281쪽, 287쪽.

37) 김희정, 앞의 책, 2014, 150쪽.

고, 최익현과 교분이 있었던 龍溪 柳基—을 찾아가 교유하고 돌아오기도 했다.³⁸⁾ 그들의 교유관계를 통해 최익현의 학문이 김희정, 김시우에게로 이어지면서 제주지역의 항일적 민족정신의 저변이 확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은 김희정 외에 대표적인 조천지역의 유림으로 소백 안달삼(1837~1886)을 들 수 있다. 안달삼 역시 김희정과 마찬가지로 본래 이한진의 벗이자 제자였으며³⁹⁾, 면암과 종유관계를 맺는 동시에 노사 기정진에게도 사사받았다.⁴⁰⁾ 성균관 교수 출신이며 칠봉서당의 화재로 희생된 고성겸(1856~1899)도 조천지역의 안달삼에게 글을 배웠고, 이후 호남의 성리학자이자 항일의병장이었던 송사 기우만의 문인이 되었다.

안달삼은 최익현과 종유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노사 기정진이 쓴 ‘소장, 서, 기, 이기설 약간 편을 옮겨 등사한 것’을 최익현에게 보여줌으로, 화서와 노사 두 학파 간의 만남을 주도하기도 하였다.⁴¹⁾ 안달삼이나 이기온 등 노사의 제주지역 제자들을 매개로 최익현은 17개월의 제주도 유배 생활을 마치고 43세에 해배되어 올라가는 길에 78세의 노사 기정진을 찾아갔다.⁴²⁾ 이는 두 문하 사이에 폭넓은 교류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기정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최익현은 1901년(고종 38) 노사 신도비의 비문을 지어 “사설을 물리치는 공을 자임하고 주기의 학설을 몰아냄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세운을 담당하였다”⁴³⁾라고 노사와 화서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안달삼의 아들이 부해 안병택(1861~1936)이다. 부친인 안달삼의 뜻에 따라 안병택은 스승인 송사 기우만 가까이서 배우기 위해 일찍이 전남 광주(이후 장성, 광산)로 이주했다. 그는 본래 조천지역 출신이었

38) 김동전, 앞의 논문, 2008, 79쪽.

39) 제주교육박물관, 『국역매계선생문집』, 2016, 13쪽, 432쪽.

40) 운영선, 『조선유현연원도』, 태학사, 1985.

41) 최익현, 『면암집』 서, ‘亟以島中時翊譽女達三所藏門下問字疏章書記理氣說若干篇者出而示之’

42) 최익현, 『면암집』 上奇廬沙正鎮 乙亥 9월 14일, ‘吾在濟州見漢羅過長城奇丈席’

43) 최익현, 『면암집』, 「노사선생기공신도비명」, ‘임피사지공’

기 때문인지 장성에 거주하면서도 제주에 거주하는 유림들과 긴밀하게 교류했다. 김희정의 유고 서문도 안병택이 썼다.⁴⁴⁾ 그는 자신의 스승인 송사 기우만의 가르침을 제주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⁴⁵⁾ 대표적인 제자가 심재 김석익(1885~1957)이었고, 조천지역의 김균배, 부성준, 안세훈, 김형식 등이 일부러 배를 타고 안병택을 찾아가 가르침을 얻으러 가는 일도 있었다.⁴⁶⁾ 안병택의 조천지역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제주지역의 유림들은 스승이 누구이고, 어떠한 학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파와 계보가 다른 여러 스승을 가리지 않고 교류하는 것이 제주도 유림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육지와 떨어져 있고, 유배지라는 환경 때문에, 정통성보다는 다양한 학풍이나 스승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용이했기에, 제주도 특유의 교학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⁴⁷⁾ 또한 김희정이 안달삼의 죽음을 추모하며 적은 글 중 ‘스승을 좇아 천리를 머다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에서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심을 가늠할 수 있다.⁴⁸⁾

또 다른 인물을 통해 제주 유림의 성격을 살펴보자. <그림 1>을 보면 노사 기정진의 문인 중에는 곽암 이기온이 있다. 곽암 이기온(1834~1886)은 최익현과 교류하면서도⁴⁹⁾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있었다.

44) 김희정, 앞의 책, 2014, 36-38쪽.

45) 봉개초등학교 내에 있는 「土人姜明鳳妻高氏孝烈之閭」 비갈문(1935년)에는 부해와 제주유림들의 긴밀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마을에서는 바다 건너로 사람을 보내 부해에게 비문을 부탁했으며, 부해도 제주 사람으로의 이에 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제주교육박물관, 『우리학교 공덕비 이야기』, 2017, 22-23쪽).

46) 김새미오, 앞의 논문, 2014, 257-258쪽.

47) 고창석·양진건, 앞의 논문, 1987, 277쪽.

48) 김희정, 앞의책, 2014, 352쪽, “병술년(1886: 43세)에 괴상한 전염병이 기승을 부려, 친한 벗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가 많았는데, 옥으로 만든 거문고 줄이 이후로 끊어져 버렸으니, 소백이 또한 돌아갔다”; 103쪽 “소백 안행오 달삼 만사 : 유학에 뜻을 두고 함께 힘을 썼는데 … (중략)… 스승 좇아 이 천리 멀다 하지 않았으며/벗이 되어 삼십 년을 넘게 보내었는데…… ”

49) 「遊漢拏山記」 면암 최익현이 한라산에 오를 때 이기온의 길 안내를 받고 함께 올랐던 기록이 나온다. 그 같은 인연으로 이기온은 면암의 휘호를 받아 백록담과 방선문 암벽에 제명을 새기고 서당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한국향

그는 1891년 연미마을에서 칠봉서당을 설립해,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며 성균관 교수였던 고성겸을 훈장으로 초빙해 운영하였다. 그의 아들이 진재 이응호인데 <그림 1>을 참조하면 진재 이응호가 부친 이기온과 스승인 고성겸(1856~1899)의 영향, 송사 기우만의 학문적 영향까지 두루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응호는 고성겸이 1899년 칠봉서당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제자를 구하면서 사망하자, 그 터에 다시 문연서당(현 제주시 연동 321)을 열어 제자를 배출하였다. 1905년 일본의 식민지배 의지가 강해지자 이응호를 포함한 각지의 대표 12명(김좌겸, 김병로, 김병구, 김이중, 서병수, 고석구, 김석익, 강철호, 강석중, 임계숙, 김기수 등)은 집의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⁵⁰⁾ 이들 집의계의 구성원끼리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응호는 집의계 구성원이었던 고석구의 아들 고경수(1898~1983)를 문인으로 받아 교육한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제주 유림의 민족정신이 가계와 더불어 교유관계를 가진 동학, 또 서당을 통해 후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는 학식을 많이 쌓더라도 김희정과 같이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에서 한문서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제주 유림들은 제자를 키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⁵¹⁾ 따라서 제주 유림의 정신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용이했을 뿐 아니라, 제주 내의 지식인 네트워크도 친족관계와 사제관계로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즉 김희정, 안달삼, 안병택, 이기온, 이응호 등의 학문과 사상은 서당을 통해 문인들에게, 또 집안을 통해 家學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토문화전자대전)

50)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216쪽.

51)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1-」, 『한국교육사학』 Vol.6, 1984, 106쪽.

Ⅲ.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조천지역 유림의 가계분석을 통한 민족 항일운동의 변화과정

앞에서 안달삼, 안병택, 김희정 등 대표적인 조천지역 출신의 유림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천지역은 유학사상의 흐름 못지않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개화사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유배 온 개화파 인사들과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계 지식인으로 인한 사상적 변화는 유림들의 자녀들이 서울, 인천, 목포, 광주 등 육지부로 건너가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1897년 12월, 외부대신이었던 김윤식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주로 유배를 와서 3년 6개월간 머무르며 홍종시, 김응빈 등 제주 지식인들과 교유했다. 김윤식의 원래 적소는 성안(成內)이었으나 방성철의 난 때 제주판관을 역임한 김응빈(1846~1928)이 자신의 집을 적거지로 내 주면서, 그와 그 집안과 친교를 돈독히 맺어갔다.⁵²⁾ 김윤식과 김응빈은 함께 굴원시회를 이끌었다. 당시 굴원시회는 김윤식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유배인 집단과, 조천김씨 이동파 문중이었던 김응빈을 중심으로 홍종시(1857~1936), 송두옥(1850~1922) 등 제주를 대변하는 집단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 모임은 204회까지 지속되었고, 당시 제주의 개화지식인과 유력자들이 이 모임에서 결집했다. 김응빈은 김윤식을 비롯해 박영효 외에 이승오, 궁내부참사였던 서주보, 시종관을 지낸 정병조, 한성부관찰사를 역임한 김경하, 친위대부위를 역임한 이태황 등과도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었다. 그 외에도 대중교 창시자 나인영(나철), 성균관 박사 정현구, 황병유, 유영석 등과도 굴원시회를 통해 교유하였다.⁵³⁾

이 모임에서 교유한 제주도 내의 유력자들은 그들끼리, 그리고 고위 정무직에 올랐던 유배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김응빈은 아들

52) 김윤식, 『속음청사』, 1898.2.20.,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380쪽.

53) 김윤식, 위의 책, 김익수 역, 2010; 김동진, 앞의 논문, 2008, 87-89쪽.

문희를 홍종시의 딸과 결혼시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지식인들과의 교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식 대에도 이어졌다. 김응빈의 종손이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김명식이 초창기 몸담았던 동아일보의 1920년 발간사를 김윤식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집안과의 관계가 김윤식의 해배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⁴⁾

또 굴원사회에 참여했던 홍종시의 아들인 홍순녕(1884~1949)은 김명식과 함께 1920년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해 활동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집행부 7개 부서에 각기 3명씩 간사를 두고 의결기관인 의사회에 회장과 15명의 의사를 선출했는데, 홍순녕은 조사부 간사로 활동하였고, 김명식은 의사회 회원이었다. 이들 외에도 서무부 간사 고순흠이 공제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조천지역 출신자이자 조선 말기 유림이었던 고성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김명식의 집안인 조천김씨 집안과는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다.⁵⁵⁾ 조선 말기 지식인들의 교유관계가 자식 대에서도 이어져, 함께 뜻을 모아 활동을 하는 면모를 볼 수 있다(<그림2> 참조).

김응전, 김응빈, 송두옥, 홍종시, 채구석, 김희두, 최원순 등은 김윤식뿐만 아니라 1907년에 유배 온 박영효와도 학문적인 질의와 토의를 통해 신학문을 접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조천지역 유림들은 애국계몽운동에 열심이었다. 이들은 대한자강회 때부터 지회 조직을 주도하였고,⁵⁶⁾ 대한자강회의 후신인 대한협회 지회 활동에도 앞장섰다.⁵⁷⁾ 1908년부터 제주지역 대한협회 정기통상회는 총 5회로 전국에서 중앙지회, 대구지회(8회) 다음으로 많았다.⁵⁸⁾ 이 당시 유림들을 비롯한 제주 지식

54) '金允植(雲養)祝辭, 『동아일보』 4월 1일자.

55) 박애림,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과 이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4-19쪽, 110-113쪽.

56) 「本會評議員 鄭鎬冕氏가 濟州支會視察次로 出發 하엿더라」,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1907년 7월 15일자.

57) 「濟州支會 請願에 對하야 視察은 停止 하고 總會에 經認 하기로 議決 하다」,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자, 44쪽.

58) 성주현, 「대한협회의 민권 의식과 근대 민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67쪽; 통상회 연설 내용은 교육보급(김희식, 1908.6.

인들이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기관 설립에도 열성적이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당시 연북정에 설립된 의흥학교의 취지문을 통해서이다. 취지문에서는 열강의 침략에서 자유를 회복할 방법으로 교육을 생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⁹⁾ 『대한협회회보』의 내용을 보면 의흥학교가 경비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자 조천지역 지식인들은 토론회를 통해 유지 방안을 고심하였고,⁶⁰⁾ 대한협회 지회 조천지역 회원인 김후식(<그림 2>참조, 문주의 아들), 송종효, 김홍배, 김두식 네 사람이 주민들과 함께 매월 기부금을 내어 경비를 부담하면서 유지해 나갔다.⁶¹⁾

조천지역에는 종교계의 영향도 미쳤다. 천주교계에서는 제주에서 1909년 최초 신식 사립여학교인 신성여학교를, 개신교계에서는 유배 온 남강 이승훈의 영향으로 문맹퇴치운동 차원에서 1910년 城內敎會에 영흥야간학교를 개설하였다.⁶²⁾ 이승훈이 조천에 유배되었던 19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 지역 교육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지역 곳곳에는 각 종교의 포교소가 신설되는데, 조천지역에는 朝天館敎會가 들어섰고,⁶³⁾ 이를 중심으로 조천지역 출신 지식인들이 활동하기도

13.), 식산개발(송문옥, 1908.6.13.), 국민의전도如何(김시학, 1908.11.14.), 계급정부는 국민의 仇敵(김희식, 1908.12.12.), 團體而心不團이면 의무는 불가(전근익, 1908.12.28.), 본회의 유지방침(안길상, 1909.2.7.), 교육의 보급(전공익, 1909.2.7.), 단체의 효력(부유근, 1909.2.7.), 改舊從新(강석빈, 1909.2.7.)이었다.

59) 「濟州郡新左面朝天里私立義興普通學校趣旨書」,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9일자.

60) 『대한협회회보』 제7호, 1908년 10월 25일자, 59쪽-60쪽; 김항구, 『大韓協會(1907~1910)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18쪽에는 대한협회지회에서 각종 교육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교육기관을 후원하거나 재건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의흥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찬흠, 앞의 책, 2005와 김명식, 앞의 기사(『민중시보』 1936년 6월 21일자)에서는 민족항일운동가인 김명식, 고순흠 등이 동시기에 의흥학교를 다니면서 교유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조천이라는 지역적 배경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61) 「의교완전」,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6일자.

62)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134-139쪽.

63) 『조선총독부 관보』, 1916년 1월 25일자, 1915년 12월 24일 조천예수교장로회 조천관교회가 포교소설립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회설립일은 그 이

하였다. 조천지역의 독서회관은 예수회에서 운영한 것인데,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들이 김문준, 김명식, 김형식, 김연배, 한우병, 김시범, 이일빈, 김순탁 등으로 각종 사회운동 및 민족항일운동에 몸담았던 이 들이다.⁶⁴⁾

즉 새로운 사상의 유입, 근대학문의 도입, 친인척 관계로 맺어진 켄 당(친족) 네트워크, 지역의 교육운동을 통해 조천지역의 민족항일운동이 후세대로 연결되어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을 출신의 활동가들은 조천지역을 매개로 제주, 서울, 일본(오사카, 도쿄) 등에 진출해 서로 밀접하게 상호 소통을 하며 의식세계를 공유해 나갔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천지역 지식인들이 영향받은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주 유림의 민족정신이 구체적으로 특정 가계를 통해 이어진 실례를 살펴보자. 비록 우연성을 내포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하다라는 분석적 한계를 가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 네트워크가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진 제주도 내 특정 지역의 가계 분석은 그 민족정신의 형태가 조선 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천지역의 명망 있던 유림이었던 김희정, 홍종율, 안달삼, 안병택 집안을 중심으로 친족·인척 관계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

전인 것을 알 수 있다.

64) 김보현, 『무天誌』, 제일인쇄사, 1976, 70쪽; 김연배(1896년생, 농업), 김시범(1890년생, 잡화상)은 조천만세운동, 사숙이나 야학을 통해 후생들 가르쳤으며 조천 소비조합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김연배, 김시범이 3.1운동 핵심인물 14인에 포함되어 거사 모의, 시위 주동 등으로 수형생활(1년/8개월)을 거쳤기에 1920년 이후 독서회관을 운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회관의 교사로서 김문준, 김명식, 김형식, 김연배, 한우병, 김시범, 이일빈, 김순탁 등이 언급된다. 송광배, 「제주 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김동전, 앞의 논문, 1996, 197쪽; 김민규, 『조천읍지』, 1991에는 예수회 주관의 독서회관이라고 되어 있다. 김연배가 조천의 예수교 교회 전도사였던 점과 독서회관과 독립회관 둘 다 김시범, 김연배의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독서회관과 독립회관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신소연, 앞의 논문, 2019, 24쪽).

있던 제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상황을 검토해 보자. 우선 검토를 위해, 조천지역 출신 유림이 영향을 받았던 인물과 영향을 준 인물을 볼 수 있도록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조천지역 출신 유림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그들이 영향을 받은 유학자를, 오른편에는 그의 자녀 혹은 제자와 그들의 활동 내용을 열거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표 1> 조천지역 제주 유림의 종유관계 및 가족관계⁶⁵⁾

연번	師(종유관계)	조천지역 출신 유림	후손		
			관계	이름	활동내용
1	면암 최익현 매계 이한진 추사 김정희	안달삼 (1837~1886)	아들	병택(=택승) (1861~1936)	제자 육성
2	면암 최익현 매계 이한진	김희정 (1844~1916)	孫	필원(1900~50)	조천만세운동
				중원	조천야학
				평원(1915~?)	조천소비조합운동, 조천면향의시위주도(징역5월)
3	송사 기우만 소백 안달삼	고성겸 (1856~1899)	아들	순흠 (1893~1977)	대동청년 대한독립단 제주해녀조합 조선노동공제회 명신학교 강사 오사카 노동동맹회 조선인 여공보호연맹 사카이 조선자유노동연맹 오사카 자유노동연맹 창립 제주 항해조합과 기업동맹 기선부 설립 신진회 조직 1946년 재일본 조선인연맹 대표자로 '민주주의 민족전 선결성대회 참석

65)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제2회, 민족지평사, 1990a;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1990b; 김찬흡, 『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2005;
 박찬식, 앞의 책, 2018, 207-218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	면암 최익현	홍종율 (1862~1905) <김희정과 인척>	이들	순일 (1900~71)	신간회 오사카지부 활동 혁우동맹 신인회 활동 제주 야체이카 활동 제주도 사회주의운동자 간담 회 참석
			조카	순기(=양명) (1896~1950)	서울청년회 계열의 조선 사 회주의자 동맹 선전부 활동 고려공산청년회 제주도 야체 이카 책임자 1928년 검거, 1930년 징역1 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 은 후 노선 철화(『친일인명 사전』에 기록)
5	해은 김희정	김시우 (1875~1918)	친척 (弟, 사촌, 팔촌)	시학, 시범, 시군, 장환, 인환, 명식 등	이들 집안의 활동 내용은 4 장에서 다룰 예정임
6	부해 안병택	부성준 (1889~1958)	동생	병준(1906~50)	'적색농민조합', '독서회' 활동
			동생	기준(1911~46)	광주학생항일운동
7	부해 안병택	김석익 (1885~1957, 성안)	子	태연 (1909~1990)	1930 전협 화학노조에 가입 1931 일본공산당 활동
8	부해 안병택 만취 김시우	김형식 (1886~1929)			재인천향우회
9	부해 안병택	안세훈			조천소비조합 1935년 김시용, 김유환과 교 유하며 공산주의 운동 접함 1947년 제주도 3·1투쟁위원 회 조직

첫 번째 김희정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자(<표 2>-2). 김희정의 손자녀 중 김필원(1900~1950), 김중원, 김평원(1915~?)을 주목하자. 이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필원(1900~1950)은 3월 21일 제1차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거사 당일 500여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시위를 주도하면서 독립만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31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1931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

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고,⁶⁶⁾ 김중원은 조천야학운동에 참여하였다.

김평원은 일제강점기 조천(신좌)소비조합운동에 안세훈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일제 경찰의 감시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그는 인민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청년동맹(이후 민청 제주도위원회로 개편)지도부에 조천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4·3의 발단이 된 1947년 3·1기념대회사건 이후 조천면에서 항의 시위를 주도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5개월을 살았다.⁶⁷⁾ 그는 조천 김씨가와도 혼맥으로 연결되는데 평원의 장인이 김시범(1890~1948)으로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김희정의 또 다른 손자인 김지원(1905~1926)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친인 항면이 돌아가셨기에 외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외조부가 송지옥으로 제주지역의 재력가이자 굴원시회의 구성원이었던 송두옥의 형이다.⁶⁸⁾ 조선 말기의 학맥과 혼맥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제강점기까지 친족 네트워크가 이어짐을 잘 보여준다.

조천지역에서 김희정만이 최익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김희정과 인척 관계인 홍종율(1862~1905, 신촌 출신)도 최익현과 종유관계를 맺고 있다. 홍종율의 가계를 살펴보면 조카인 순기(1896~1950)와 아들인 순일(1900~1970)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순기는 양명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제주 삼도리 출신으로 1919년 경성고보 1학년 재학 당시 3·1운동을 겪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서울청년회 계열의 조선 사회주의자 동맹 선전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고려공산청년회 제주도 야체이가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1928년 4월에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고, 1930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출감하였고, 이후 1931

6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10-제주 어도 진주강씨, 조천 김해김씨,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2014, 69쪽.

67) 박찬식, 앞의 책, 2018, 181-183쪽.

68) 김찬흠, 『제주인물대사전』, 2016, 290쪽.

년부터 1937년까지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였다.⁶⁹⁾

순일(1900~1970)은 1925년 3월 조직된 제주에서 사회주의 단체인 신인회에 총무간사를 맡았다.⁷⁰⁾ 신인회의 핵심 회원들이 체포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는 당시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오가면서 활동하였다. 당시 제주와 일본 오사카 사이의 정기선 운항으로 제주도민의 왕래가 비교적 잦았다. 그는 오사카에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산하의 오사카조선노조와 신간회 오사카지부에서 활동하였다. 또 제주에서도 1930년에는 야학교사들이 중심이 된 비밀결사 혁우동맹에 참석하였고, 1931년 제주야체이가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1935년 6월 김문준(1896~1936, 조천출산)이 발간한 오사카내 유일한 조선어판 언론인 『민중시보』의 10명 동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⁷¹⁾

그의 일제강점기의 활동 이력을 살펴보면 어릴 때 서당에서 한문학을 초중등에서 근대교육을 수학했던 제주의 근대교육수혜자 1세대 청년들의 활동형태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⁷²⁾ 1920년대 초반 민립대학 설립 운동, 제주의 청년운동 등 계몽 운동을 주도했다. 1920년대 중반 실력양성운동의 한계를 느낀 이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제주 각지의 청년회를 하나로 묶어 전국적 조직으로 연대하면서 청년운동, 여성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기관지 발행, 수해 구제 건 등을 결의했다.⁷³⁾ 1928년 제4차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으로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강창보⁷⁴⁾가 제주도로 돌아와서 「제주도 사회주의 운동자 간담회」

69) 그는 1938년 『만선일보』 정치경제부장, 편집국장의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70) 『동아일보』 1925년 3월 19일자.

71) 신소연, 앞의 논문, 2019, 52쪽.

72)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97쪽.

73) 『동아일보』 1925년 10월 1일자.

74) 1925년 3월 11일 신인회를 조직할 때 교양부 간사를 맡고, 이 일로 김택수, 송중현과 함께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청년동맹에 가입해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7년 송중현의 권유로 공산당에 입당하여 제주에서 첫 공산주의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1928년 8월 26일 제4차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으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미결기

을 개최해 조선청년동맹의 해소, 신간회 해소, 농민문제, 기타 운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는데⁷⁵⁾ 이때 순일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당시 이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원들 대부분이 제주청년동맹 출신자들로서 신인회 혁우동맹에 참가한 이력이 있던 이들이었다.⁷⁶⁾

안달삼과 기우만에게서 사사 받은 고성점(1856~1899)의 아들인 죽암 고순흙(1893~1977)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라 평가받는 인물이다. 순흙이 어릴 때 부친이 사고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만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조천 연북정에 세워진 근대학교인 의흥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정신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흥학교에는 조천김씨 집안의 김형식·명식 형제와 김문준, 홍두표가 같이 다녔다. 호가 죽암인 순흙은 솔뫼(송산) 김명식, 매원 홍두표와 19세에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목도하고는 「天地爲誓 日月爲證(하늘과 땅에 맹세하노니 저 해와 달은 증명하리라)」라고 혈서를 써서 「송매죽」이라는 호처럼 절개를 끝까지 지켜 학력을 쌓은 후 조국의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로 맹세했다고 한다.⁷⁷⁾

이후 순흙은 10대부터 대동청년단, 대한독립단 운동을 하였고, 1920년엔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에, 1924년엔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무정부주의자로서 제주항해조합을 만들어 제주 오사카 간의 독립적인 운항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재정 부족으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1929년부터 오사카 내 제주 민중

간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1년 출옥 후 제주에서 당 재건 등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해녀 항일투쟁을 지도하고 1932년 5월 제주도 야체이가 책임자로 검거되었으나 제주경찰서에서 탈출하여 복목환에 숨어 오사카로 탈출하였다. 강창보를 숨긴 이는 동아통항조합 제주도출장소장이었던 강병희였다. 강창보는 도쿄로 들어가 송성철 등과 비밀리에 접촉해 일본공산당과 연계하여 전협 토건노조 노동 운동에 참가하면서 『조선신문』발간에 동참하였다.

75) 「동아일보」 1932년 12월 16일자 ‘예심종결서’(三)

76) 염인호, 앞의 논문, 1990, 118쪽.

77) 김찬흙, 『항일인사실기』, 2005, 530쪽.

에 의해 제주의 자주운동이라 불리는 동아통합조합운동으로 이어졌다.

부해 안병택의 제자로는 부성준, 김균배, 김석익, 김형식, 안세훈 등이 있다. 김석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천지역 출신자이다. 안병택의 제자들이 제주의 의병운동, 조천만세운동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과 일제강점기 총독부 경찰이 부해 안병택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이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안병택의 제자였던 부성준의 경우는 한학자의 삶을 살았으나, 그의 동생 부병준(1906~1950, 부기준의 형, 북촌)은 경성고등보통학교와 메이지 대학 전문부 경제과를 수료하고, 1928년 경성조선청년총동맹 등에 가입하였다. 그는 1932년 제주도로 돌아와 1934년 '적색농민조합' 결성 준비를 포함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1935년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일명 '운동자연구회' 기도사건으로 인해 1937년 검거되었다. 또 다른 동생 기준(1911~1946, 북촌)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한편 부해 안병택의 제자이자 친족 관계인 안세훈은 일제강점기에 간도 지역으로 건너가 간도 간민교육 연구회 상무서기로 일하다가 1931년 즈음에 제주도로 귀향하여 농사에 종사했다. 그는 같은 지역 인물인 김시용, 김유환, 현사선, 김평원 등과 교류하면서 조천(신좌)소비조합 활동을 하였다. 1942년에 검거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상범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다. 해방 후 조천면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자 위원장에 피선되었고, 이후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 결성에 독립운동가 대표로서, 당시 민전 의장단에는 불교계 대표인 이일선, 유림대표인 현경호와 함께 의장단에 참여하였으며,⁷⁸⁾ 4·3사건의 시발점이 된 1947년 3·1기념일 사건 후 1947년 그의 나이 55세에 제주도 전체의 3·1 투쟁기념준비위원회 지도부 위원장을 맡았다.⁷⁹⁾ 그는 3·1 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⁸⁰⁾ 안세훈은

78) 김찬흡, 앞의 책, 2005, 519쪽.

79) 박찬식, 앞의 책, 2018, 193쪽.

1948년 8월에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차 해수에 갔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한국으로 내려왔다. 제주도로 돌아오려 했으나 길이 막혀서 나주 근처에 땅굴을 파고 2년 가까이 땅굴 생활을 하다 사망하였다.⁸¹⁾

IV. 일제강점기~미 군정기 조천김씨 집안을 통해 본 민족 항일운동의 변화과정

조천지역의 유력한 집안 중에서도 조천리 梨洞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소위 ‘조천 김씨’로 불리는 김해김씨 삼현파의 조천리 이동파 문중 인물들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²⁾ 이들을 ‘조천 김씨’ 또는 ‘이동파 김씨’라 부르게 된 연유는 조상인 김광택(1746~1838) 때부터 조천 梨洞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김광택은 致文과 致潤 두 아들을 두었는데, 致潤의 6남 중 경임을 제외한 다섯 아들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20세기 초반 ‘조천김씨 이동파 문중’은 현감 등 관직 역임자를 8명이나 낸 제주의 대표적인 閥門이 되었다. 당시 현실 인식에 따라 일제의 문화정책에 동화해 나가는 부류와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부류로 양분되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당시 지식인의 시대적 인식과 선택을 제주의 한 가계에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⁸³⁾ 본 연구에서는 족보를 기본으로

80) 박찬식, 앞의 책, 2018, 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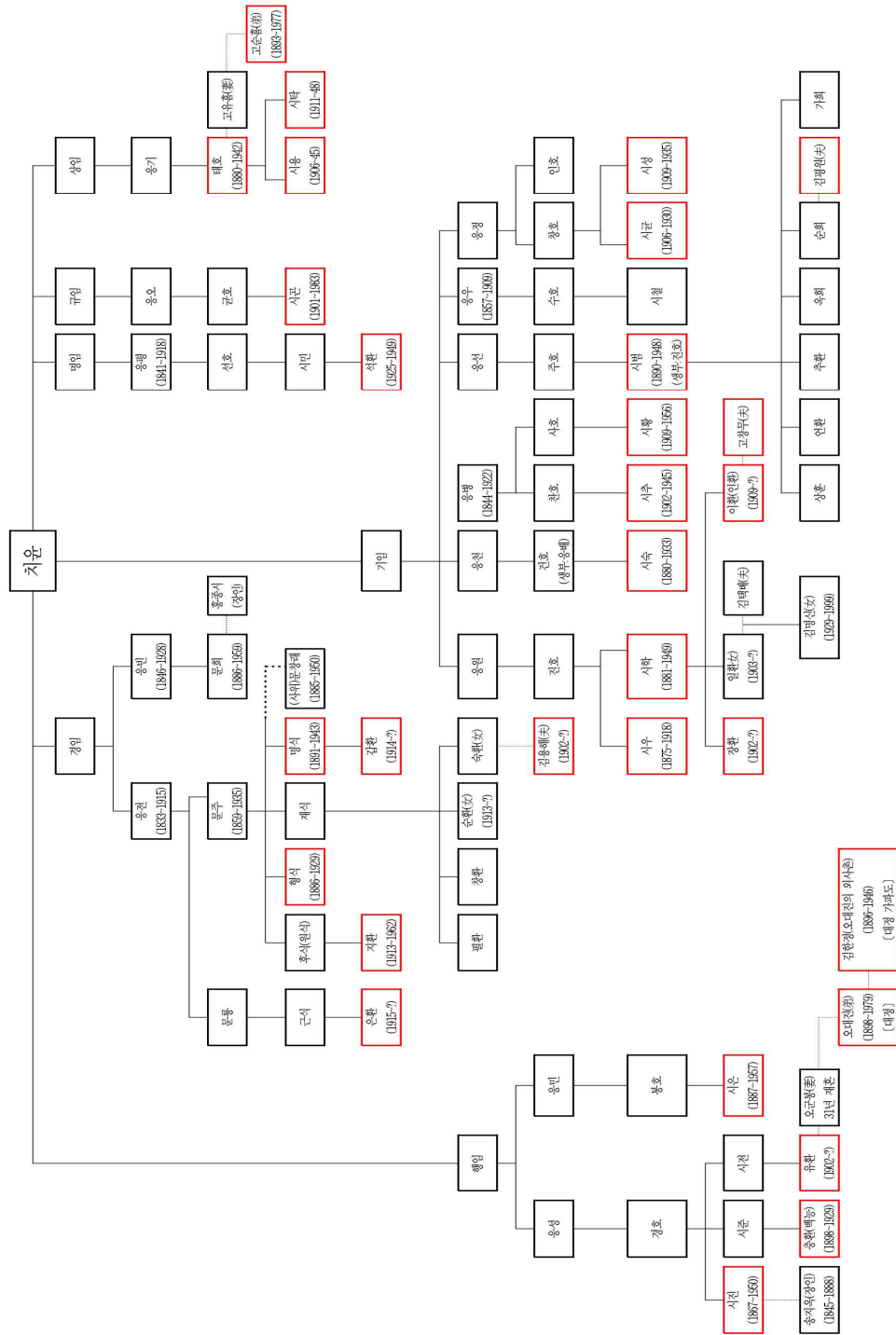
81) 김창후, 앞의 책, 2017, 300-301쪽.

82) 고려 충정왕 때에 版圖判書를 역임한 金管을 시조로 하여, 제주 입도는 김복모, 김근한, 김기손의 세 개 지파로 각기 입도조를 삼고 있다. 이 중 이동파 문중은 중조 김관의 10세손이 되는 金福模를 입도조로 삼고 있다. 김복모의 7세손 金建南(1608~1695)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는데, 흥년으로 기근이 들 때 백성들을 진휼하여 조정으로부터 ‘가선대부’를 제수받기도 하였다. 김건남의 현손인 金光澤(1746~1838)은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仙風道骨의 풍치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매우 따랐다고 한다(『金海金氏 三賢派 諱福模派譜』, 2012; 김찬흠, 「정의현감 김문주 가문에 대한 관견」, 『농은문집』, 복제주문화원, 2004).

83) 김동진, 앞의 논문, 2008, 67쪽; 김응전의 가계는 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되 시기별로 민족운동을 한 기록이 있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이들을 주목하여 친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가계도를 <그림 2>로 표현하였고, <표 2>에서는 조천김씨 중 치유훈계 집안의 시기별 운동형태의 변화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 주요 인물들을 출생 년도 순으로 정렬하였다. 또한 비고란에 사돈 혹은 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주목해야 할 인물들을 제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독립유공자포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의 훈격을 기재하였다.

해방을 전후해 가계가 몰락한 반면에 김응빈 가계는 일본의 정치에 동화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응전과 김응빈 모두 1910년 11월 3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兩班耆老에게 주어졌던 은사금을 각 50원, 15원씩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은사금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혼맥을 포함한 가족관계와 근대 교육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김해김씨 삼현파 중 이동과 치윤계 친인척 관계도(84)

84) 『金海金氏 三賢派 諱福模派譜』; 김찬흡, 「정의현감 김문주 가문에 대한 관견」,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2004, 29-34쪽; 김찬흡, 앞의 책, 2016을 참조하였다.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부 발췌하였으며, 민족운동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혼인 관계 또는 친인척 관계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이 관계도는 현재 계속 보완 중이다.

<표 2> 조선 말기~미 군정기 조천김씨 삼현파 이동 문중 치유허계 인사 주요활동⁸⁵⁾

연번	성명		생졸 년도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후	비고	관련인물 서훈
	한글	한자					
1	시진	時晉	1867 ~1950	1909~1911 사립 신성여학교 초대 교장. 1923 사립명신학교 개설 (제주명신학회 회장)		장인: 송지옥 사위: 윤석원	
2	시우	時宇	1875 ~1918	한학자. 해은 김희정의 문인		弟: 시학, 시범(시우의 4째 동생, 주호에게 입양)	
3	태호	泰鎬	1880 ~1942	1910 신명익숙설립 1920 제주해녀조합 창립 1923 제주노동공제회 이사 1924 조천면장, 1929 조천교의 학무위원 1935 중학기성회		처남: 고순흠 子:시용, 시탁 신명익숙 師丈 : 안세훈	
4	시숙	時淑	1880 ~1933	1925 여성 계몽 운동, 조천 여성 야학 운영(요시찰 대상) 1927 일본 오사카, 재일여공보호회 조직, 재일여공노동 소비조합 조직, 신진회(고순흠) 여성부 책임자 [관련인물: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이재량, 고순흠]			
5	시학	時學	1881 ~1949	1915 재경도한인유학생회 회계 1927 조선농인사 창립시 발기인 [관련인물 : 여운형] 1928 만주		子: 장환, 이환(女) 兄 : 만취 김시우	

85) <그림 2>와 <그림 3>은 『金海金氏 三賢派 諱福模派譜(2016년수정판)』; 김찬
흠, 『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2005; 『제주인물대사전』, 2016; 제주4·3연
구소, 『4·3증언자료집 1-이제사 말함수다』, 1989; 박찬식, 앞의 책, 2018;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기억을 기록하다』, 2019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동삼성귀화한족동향회 조직 [관련인물 : 한형권, 손정도, 최동오]		
6	시은	時殷	1887 ~1957	1919 조천만세운동		건국훈장 애족장
7	시범	時範	1890 ~1948	1919 조천만세운동	1947 조천면장 조천면 3·1대책위 조직	堉: 김평원 건국훈장 애족장
8	명식	明植	1891 ~1943	1920 노동공제회 신생활 필화사건 ⁸⁶⁾		건국훈장 애족장 父: 문주 子: 갑환
9	충환 (백 능)	忠煥 (伯能) ⁸⁷⁾	1898 ~1929	1919 조천만세운동		
10	시곤	時坤	1901 ~1983	1930 혁우동맹 1931 야체이카활동 1932 해녀항일운동		건국훈장 애족장
11	장환	章煥	1902 ~?	1919 조천만세운동		
12	시추	時秋	1902 ~1945	1929 금주운동 1929 제주청맹 조천지부 정기총회 준비위원장 1929 노동야학 개설, 계몽활동 [관련인물: 김서호, 윤창석, 김지환, 김순탁, 김유환]		윤창석 : 1930년 제주청년동맹 조천 지부원, 야학활동 1933년 혁우동맹 및 제주야체이카 활동에 연루 체포되어 징역 10월 인도받음 건국포장
13	유환	瑤煥	1902 ~?	1929 금주운동 1930 혁우동맹 1939 조천 소비조합운동	1947 3·1준비위원 회 조천면 위원장 1948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14	시균	時均	1906 ~1930	1929 노동야학		
15	시용	時容	1906 ~1945	<p>신명익숙 졸업/사립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중 동맹휴학으로 퇴학/ 도쿄 와세다 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1926) 1925 오일회 조직 - 노동학원 설립 1925 신인회 창립 멤버 1929 노동야학 설립(문맹퇴치 운동) 1929 재일 조선청년동맹 집행위원 1929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기관지 편집 및 출판위원 [관련인물 : 고경흠] 1931 부산 노동조합 비밀결사 - 2년형 1934 제주도로 귀도 1937 제주도 농민조합운동 1939 조천소비조합운동 1942 불온사상유포와 유언비어 날조로 금고 1년 구형 받음</p>		건국훈장 애국장
16	시성	時成	1909 ~1935	1929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고보 성진회의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1년 6개월 옥고		건국훈장 애족장
17	시황	時璜	1909 ~1956	1929 광주학생운동 - 금고4월에 집행유예5년 선고, 미결기간동안 6개월 정도 옥고	1952 초대지방의회 의원 조천면의회 의원 북제주교육구 교육의원	대통령표창
18	이환	二煥	1909		1947	父: 시학

	(인환) (仁煥)	~?		제주부녀동맹 (위원장: 김이환, 부위원장: 고인선, 강어영, 집행위원: 고순덕 등 80여명)	夫: 고창무 [삼양] : 1947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 선(민전) 발기인 [관련인 : 안세훈, 김정로, 김용해 외 30여명] 부의장: 김시범 1948 제주 4·3 좌익증건으로 체포, 미군정 재판
19	시탁 時鐸	1911 ~1948	1919 조천만세운동	1946 콜레라 창궐 시 의사로 역할 1946 조천면인민위 원회 문교부장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 당선 1947 남로당 조천면위원장	外叔: 고순흙 兄 : 김시용
20	지환 址煥	1913 ~1962	1929 노동야학 계몽활동 제주청년동맹		
21	갑환 甲煥	1914 ~?	1928년 3월 도일 1931 일본공산당 외곽단체인 전협화학노조 효고현지부 가입 [관련인물 : 현호경] 1933 화학노조 간사이지부 책임자 일본공산당 가입 1934 오사카지방재판소		父: 명식

				2년 확정	
22	은환 (은환)	閔煥 (閔煥)	1915 ~?	1933 일본 전협 화학 오사카지부 전협 금속노조에 가입 일본공산당 입당 1933 일본공산당 오사카시위원회 북지구 소속 가두세포로 활동 중 피검 1934년 7월 21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관련인물: 김서호] 김서호(1904~?) 족보에 의하면 김해김씨 삼현파 중 도두파이다. 김응현의 3남으로 조천김씨와는 면 친척관계이다.

<그림 2>와 <표 2>를 통해 집안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성리학적 배경이다. 김응전은 1848~1851년에 제주에 유배 온 관하 이승헌(1792~?)에게 글을 배웠으며, 무과급제 후 1881년(고종 18) 민태호의 추천으로 충청도 해미현감에 임명되었다. 김응전의 아들 김문주는 정의 현감을 역임하였고, 면암 최익현이 대마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탄과 슬픔을 한시로 쓰기도 하였다.⁸⁶⁾ 문주의 차남인 혁암 김형식(1886~1929)은 부해 안병택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리고 형식이 존경한 8촌 재종형이었던 김시우는 해은 김희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둘째는 개화사상을 가진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상적 흐름이다. 김윤식이 을미사변으로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이 집안의 김응빈은 홍종시 등과 함께 굴원시회를 주도하며 제주의 개화지식인들과 유력자들이 교류하였다. 그 자리에는 김윤식을 따라 온, 민족주의적 운동 이력을

86) 신생활 필화 사건은 1922년 11월 월간지 《新生活》이 러시아의 10월 혁명 5주년 기념호를 발간하면서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에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가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으로 불리었으며 《신생활》은 폐간되고 김명식 등 관련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87) 이전 문헌들에는 百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12년 개간된 삼현파 족보에 伯能으로 표기되어 있다.

88) 김문주,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2004, 9쪽.

가지고, 1909년 대중교를 창설하여 구국운동을 펼친 나인영(나철)도 있었다.⁸⁹⁾ 김윤식이 방성철의 난을 계기로 김응빈의 형인 응전의 집에서 피난하며 머무르게 되면서 이 집안과 김윤식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또한 1907년 박영효가 유배 왔을 때도 응전, 응빈 형제는 해은 김희정의 사돈인 송두옥 등의 제주지역 유력자와 함께 모임을 가지며 신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천지역의 계몽운동은 활발하였고, 더불어 교육기관 설립과 자제들의 교육에 열심을 보였다.

<표 2>를 보면 조천김씨 친인척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이들의 민족정신은 이어지되 그 운동의 형태가 1919년 조천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변화함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성리학파 개화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계몽주의적 성격의 운동이 1919년 이후로는 노동운동, 제주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일본공산당 활동 등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전국적인 운동의 흐름을 제주도의 한 가계 내에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고립 속에 있던 제주의 한 지역인 조천지역의 한 집안에서 한반도 전반의 항일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천지역이 얼마나 시국에 발 빠르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천만세운동으로 김시범, 김시은, 김장환은 1년 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22세였던 김백능(충환)도 6개월형(집유3년)을 선고받았다.⁹⁰⁾ 조천만세운동 이후 일부는 감시를 피해 일부는 비밀리에 다른 조직으로 항일운동을 이어가기도 했지만,⁹¹⁾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 민족운동의 결과에 실망하여 다른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 당시 민족운동에 눈을 뜬 어린 학생들을 위해 민립학교나 개량서당의 형태로 교육운동에 매진하고, 항일운동의 바탕 사상으로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89) 김윤식, 『속음청사』, 33, 303쪽.

90) 김동전, 앞의 논문, 1996, 198쪽.

91) 당시 교사(23세)로서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하여 8개월형을 받은 박두규 지사의 아드님과의 인터뷰에서 채록함(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기억을 기록하다』, 2019, 364쪽).

다음으로 <그림 1>, <표 1>에서 등장한 인물이 <그림 2>, <표 2>의 조천김씨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 경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에는 지역의 유력자 집안끼리, 일제강점기 이후는 사상의 연결선에서 혼맥이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순흙의 매형은 조천김씨 이동파의 김태호(<표 2>-3)이다. 이 때문인지 순흙은 매형이 제주해녀조합을 설립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일본에서는 김시숙(<표 2>-4)과 함께 여공보호에 힘썼다. 고순흙이 이루지 못했던 제주 자주운동은 조천김씨 이동파 김문주(김명식<표 2>-8의 父)의 사위인 문창래⁹²⁾와 조천지역에서 함께 키운 김문준 등이 동아통향조합운동으로 이어갔다.⁹³⁾ 대표적인 제주의 민족 항일운동가인 고순흙, 김문준, 문창래 이들 사이에는 조천김씨 집안이 존재했다.

김문주의 사위인 문창래(1885~1950)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1919년 조천만세운동 이후 4,450명으로부터 1만원을 모아 상해 임시 정부로 송금한 이력이 있다. 이 일로 애월면장 직에서 물러나 1920년 초 목포로 옮겨 사업을 하면서, 동아일보 목포지국장을 맡아 경영하였다.⁹⁴⁾ 또한 1923년 11월 사립명신학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유지자 대회를 개최했고, 간사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립대학 설립운동에도 기여하였다. 후일 오사카-제주를 오가는 「복목환」의 자주 운동을 위해 1930년 3월에 조직한 제주 동아통향조합운동의 중심에도 있었던 인물이다.⁹⁵⁾

92) 김찬흙, 앞의 책, 2016에 문창래가 김문주의 사위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김문주의 족보를 확인해 본 결과 김문주의 자녀는 4남 3녀 였는데, 3녀의 남편으로 김흥배와, 한정섭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되지 않은 이가 문창래라고 추측한다.

93) 신소연, 앞의 논문, 2019, 57-58쪽.

94)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자.

95) 동아통향조합운동은 제주-오사카 항로를 거의 독점하는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부가 경찰과 결탁해 기미가야마루[君ヶ代丸]의 운임을 12엔 50전까지 인상시킨 것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 4월 21일 중앙공회당에 약 2천명을 모아 설립대회를 열었다. 동아통향조합은 제주출신자인 김달준, 문창래, 현길홍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垂って: 朝鮮人街猪籠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220-221쪽, 김한봉씨 증언; 99쪽, 고영순씨 증언).

이 집안과의 혼인관계를 더 살펴보면 <표 1>-5에 등장하는 김희정의 손자인 평원이 조천김씨 시범(<표 2>-7)의 사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1932년 조천 마을에서 소년 소녀들을 모아서 ‘일제의 압박과 착취로 인해 자유가 없어지고, 부모형제들은 일본 오사카 노동시장으로, 혹은 압록강을 건너 유랑생활을 떠난다.’고 역설하였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37년 김시용, 안세훈, 김유환, 현사선 등과 함께 조천소비조합운동에 참여하였다.⁹⁶⁾

『김해김씨 삼현파』 족보에 따르면 김용해(1902~?)는 김문주의 손녀인 순환(1913~?)의 남편이다. 김용해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지하항일운동을 했으며, 1926년경 일본 오사카에서 김달준, 고창옥 등과 노동야학을 이끌고, 1929년 오사카에서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후에 동아통향조합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1944년에 귀향하였다. 해방 후에는 건준 애월면 위원장에 피선되었고, 건준의 산업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민전 부의장(1947)을 맡아 1947년 3·1기념행사 후 파업 투쟁 돌입시 검거되었다.

이제 조천김씨 집안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김시진(<표 2>-1)을 보자. 그는 송지옥(1845~1888)의 사위였다. 송지옥은 동생 송두옥과 함께 해산물상을 운영하여 육지부와 교역하는 당대의 부호였다. 송두옥은 해은 김희정과 사돈 관계였다. 이로써 해은 김희정-송두옥-송지옥-김시진의 연관성이 보인다. 또한 소백 안달삼의 문인이었던 한학자 고성겸의 집안은 1910년 신명의숙을 설립한 조천김씨 집안의 태호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표 2>-3). 이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시 관직에 있거나 과거를 준비했던 유림들이 서로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맥 또한 시기적으로 운동형태가 바뀌면서 비슷한 사상을 가진 집안들끼리 맺어졌다. 물론 유일한 배우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서로에게 형제자매를 소개함으로써 인척을 맺었

96) 김찬흠, 앞의 책, 2016, 311-312쪽.

다.⁹⁷⁾ 일제강점기 조천소비조합운동을 한 유환(<표 2>-13)도 오대진과 혼맥으로 이어져있고, 오대진의 외사촌이 1920년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항일운동가였던 김한정이었다. 이로 인해 김유환-오대진-김한정의 관련성이 보인다.

조천만세운동 이후 이들의 운동형태는 1920년대 교육운동과 계몽운동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들이 계몽하고자 하는 대상에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시진(<표 2>-1)은 신성여학교와 이를 이어받은 명신학교의 수립에, 김태호(<표 2>-3)는 일제강점기 초기 조천국민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신명의숙 수립에 관여하였다. 1920년대에는 김시숙, 김시추, 김시균 등이 여성 야학, 노동 야학 등을 운영함으로써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조선 말기부터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 교육운동에 매진했던 영향 탓인지, 이 집안은 자녀들을 1900년대 초반부터 근대교육을 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민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으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제주도 실정에서 육지나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도 빈번했다. 김장환의 아버지인 김시학(<표 2>-5)과 김문주의 아들 김명식(<표 2>-8)은 일본으로 유학하였고, 거기서 조선유학생학우회 활동을 했다. 학우회 간부가 된 김명식은 1916년 신익희와 만났고,⁹⁸⁾ 김시학은 1917년 신익희 등을 방문하여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일본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김시학의 구체적인 이후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1927년 朝鮮農人社를 창립할 때 여운형과 함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⁹⁹⁾

서로 다른 경로였지만 1910년대부터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림들 밑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이어 근대화된 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제주

97) 제주4·3연구소, 『그늘 속의 4·3: 死·삶과 기억』, 선인, 2009.

98) 김동진, 앞의 논문, 2008, 81쪽.

99) 『동아일보』 1927년 1월22일자, '농촌의 계발과 문맹퇴치를 목표 재작일 이십여인의 발기로 조선농인사를 창립'.

지식인은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전국적으로 항일활동을 펼쳐나갔다.¹⁰⁰⁾

이들의 민족항일사상은 문학면에서도 드러난다. 김문주의 차남인 형식(<표 1>-7)은 1919년 조천만세운동 이전에는 조선 문예에 한시를 게재하며 일제의 국권 수탈에 대한 울분을 달랬는데 그의 아호 革菴은 ‘암울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담겨있다.¹⁰¹⁾

조천지역 인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 의식은 타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김명식은 1910년 서울에서 종숙인 김문희와 1000환씩 출자해 유학 중 학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는 유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를 위해¹⁰²⁾ ‘제주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김명식의 형인 김형식은 동향 친우인 홍순녕, 고순흙 등과 함께 재인천제우회를 만들어 타지역 제주공동체를 이끌었다.¹⁰³⁾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천지역 유림들로부터 내려온 영향과 개화사상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근대교육 수혜자 1세대로 하여금 조천지역에서의 교육운동은 1920년대에 더 강화되었다. 일제 당국은 3·1운동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에 대한 교육차별을 했으며, 사립학교가 항일운동의 인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학교 입학 열기와 함께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사립학교 중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처사로 濟州島司는 특히 조천지역에 있는 학교를 예의주시했다.¹⁰⁴⁾

김형식의 동생이었던 김명식은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였다. 김명식은 서울,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를 왕래하면서 당대의 사상가들과 교류

100) 김시곤(1901~1983)선생 생전에 신익희 선생이 제주에 오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김용환(子)인터뷰, 2019.10.4.). 이것으로 보아 김시학, 김명식 외에 조천김씨 집안과 좀 더 폭넓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101)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북제주문화원, 2004; 김동전, 앞의 논문 2008, 77쪽 재인용.

102) 『대한매일신보』, 1910. 7.5; 『황성신문』, 1910.7.5.

103) 김찬흙, 「근대의 제주교육」, 『제주교육사』, 1999, 367쪽.

104) 최병택, 「1920~30년대 제주도 지역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과정에 나타난 특징」, 『탐라문화』 51, 2015, 311-318쪽.

하면서 레닌과 러시아혁명,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였고, 『동아일보』와 『신생활』 잡지를 통해 그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파 시킴으로써 무산계급의 혁명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그의 아들 김갑환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 운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시은(1887~1957), 김시범(1890~1948), 김충환(1898~1929), 김장환(1902~?)(<표 2>-6,7,9,11)은 조천만세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김시곤(1901~1983), 김유환(1902~?), 김시추(1902~1945), 김시균(1906~1930), 김시용(1906~1945)(<표 2>-10, 12, 13, 14, 15)의 이력을 보면 혁우동맹, 해녀항일운동, 노동야학, 조천 소비조합운동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9년생인 김시성(1909~1935)과 시황(1909~1956)(<표 2>-16, 17)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갑환과 은환(<표 2>-21, 22)은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학맥과 가계를 통해 시기별로 다른 형태를 취했던 민족운동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1945년 해방을 맞아서 제주도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는 대신에 제주도는 미 군정이 들어섰다. 미 군정 시기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치적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각면별로 국민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해 자치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¹⁰⁵⁾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청장년층들은 해방 후 자연스레 인민위원회와 교육계에 관여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들도 해방 후 합류하면서 인적 인프라가 더욱 충족되었다.

이로 인해 4·3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진압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세력이 마을공동체와 민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위 정치행정 집단과 학교집단(교사·학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북양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해방 후 강정국민학교 교원을 했던 강봉신씨(1927년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국민학교 교원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

105) 박찬식, 앞의 책, 2018, 177-178쪽.

다고 한다. 1947년 3·1사건 이후 민관총파업에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여 많은 교원들이 검거되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으로 풀려나거나 형무소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로 학살되던 시기엔 학교 교원을 포함한 지식인은 어김없이 빨갱이로 몰려 여기저기서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¹⁰⁶⁾

또 다른 정치행정집단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인민위원회와 이후 남로당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를 주도했던 인물로는 위원장 오대진, 총무부장 김정로, 재정부장 김택수, 산업부장 김용해, 보안부장 김한정, 선전부장 현호경, 조직부장 조몽구 등으로 1920~30년대 일본과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민족항일운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조천김씨가와 관련되어 있다. 오대진은 대정 출신이지만 김유환과 사돈 관계이고, 김한정은 오대진의 외사촌이다. 김용해는 문주의 3남 재식의 사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인물들도 김정로, 김택수, 현호경, 조몽구 등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조선노총, 오사카조선노조, 전협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¹⁰⁷⁾

조천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보더라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안세훈, 부위원장이 조규창(신촌출신)이었다. 안세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 조천소비조합을 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조규창은 일제강점기 오사카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준이 세운 신성 의숙을 나왔고, 조천 중학원을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¹⁰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내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언어인 일본어를 학습하다가, 해방된 사회가 되자 필요한 언어는 한국어였다. 특히 일본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더

106)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증언 채록집』, 2003, 7-8쪽, 강봉신씨(1927년생, 2002년 당시 오사카 거주)의 증언.

107) 신소연, 앞의 논문, 2019, 61쪽.

108)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기억을 기록하다』, 2019, 179쪽.

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자식들이 거친 바다를 무릅쓰고 가지 않기를 바랐던 마을 유지층의 기부와¹⁰⁹⁾, 민족교육을 통해 식민지의 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헌신이 만나 각 마을마다 학교가 정비되었다. 조천지역에서도 기존에 있던 학교가 정비되거나,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었다.¹¹⁰⁾

특히 신촌국민학교¹¹¹⁾와 조천 중학원은 해방 후 설립된 학교들이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혼재한 시기였고,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는 돈독하였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운 학생이 교사를 도와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상호교육의 시기였다.¹¹²⁾ 하지만 이런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가 1947년 ‘제28주년 3·1기념 제주도대회’ 이후 이데올로기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47년 3월 1일에 열린 ‘제28주년 3·1기념 제주도대회’는 전 계층이 참여한 거도적 집회였다. 1947년 제주도 인구를 28만 여명으로 추산했을 때 약 20% 정도가 참여했다. 제주읍과 조천면 애월면 합동집회 참석인원만 2만~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¹³⁾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각 읍·면별, 직장별로 ‘3·1사건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를 대응했던 핵심 조직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6년 12월 25일에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를 해소하고 결성된 것이었다. 일반대중을 포섭하기 위한 온건한 노동당으로의 변화였다. 이미 북로당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취할

109) 제주 4·3연구소, 앞의 책, 2009, 85-86쪽, 김대진의 딸 김낭규의 증언.

110)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교육계 4·3피해실태』, 64-92쪽.

111) 1945년 9월 1일에 개교한 신촌국민학교의 설립에 대한 증언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기억을 기록하다』, 2019, 179쪽,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사)제주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증언 채록집』, 2003, 11쪽, 제주4·3연구소 편, 『그들 속의 4·3』, 2009, 74쪽에 있다.

112)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증언 채록집』, 2003, 11쪽.

113) 박찬식, 앞의 책, 2018, 194-195쪽.

수 있는 것은 남로당이였다.¹¹⁴⁾ 당시에는 합법적 정당이었고, 일제강점기 민족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당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안세훈이 맡았고, 김정로, 김유환, 김용해, 김은환, 문도배, 현호경, 조몽구, 오대진, 김한정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교육과 인민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신뢰를 받았다.¹¹⁵⁾ 남로당 조천면위원장은 조천김씨가 김시탁(<표 2>-19)이었고, 선전부장은 김민식이였다.¹¹⁶⁾

제주도내 관공서와 학교·직장 등에서 총파업을 실시했다. 제주도내 읍·면별 3·1투쟁준비위원회 지도부 명단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 위원장이 안세훈이었고, 조천면 위원장이 김유환(<표 2>-13), 부위원장이 김시범(<표 2>-7)이였다.

이들의 3단계 행동 방침을 보면 첫째, 준비기간 중 각 학교별로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둘째, 3·1기념의 역사적 의의를 아동에게 인식시키고 아동을 통하여 학부모에도 인식시킬 것, 셋째, 투쟁기간에 있어서는 3·1운동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한을 둘 것¹¹⁷⁾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완전독립을 목표로, 교육과 계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치행정집단과 학교집단의 대중운동의 역할은 파업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다. 도청 등 관공서 23개소, 중등학교 13개교, 국민학교 92개교가 파업에 들어갔고,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총 105개교의 39,860명, 관공서 23개 기관 515명이 전체 파업의 약 98%에 해당했다.¹¹⁸⁾ 총파업 주도세력 245명을 직업별로 통계내면 농업이 94명, 교사가 79명, 공무원이 22명이다. 기초산업인 농업을 제외하고는 주도 세력 직

114) 제주 4·3연구소, 『4·3증언자료집1-이제사말씀하다』, 1989, 181쪽.

115)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2, 1991;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2018, 178-180쪽.

116) 박찬식, 앞의 책, 2018, 188쪽.

117) 『제주신보』 1947년 2월 26일자.

118) 박찬식, 앞의 책, 2018, 203쪽.

업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군정 또한 총파업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정치행정집단과 교사들을 검거함으로 이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했다.¹¹⁹⁾

조천면장이었던 김시범은 조천면 3·1대책위를 조직하였다고 벌금 3천원, 김완배는 북촌리 3·1대책위를 조직했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김평원은 조천면 항의시위를 주도해서 징역 5월, 김석환은 조천교 파업단 위원회를 조직해서 벌금1천원, 안세훈은 제주도 3·1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징역1년(집유)을 언도받았다.¹²⁰⁾

당시 조천지역의 교사들 중에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중책을 맡은 이들이 많았다. 이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입산해 무장대 활동을 지원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빨갱이 학교’로 주목을 받아 4·3 와중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¹²¹⁾ 고난희씨의 다음 증언을 통해, 무장대를 도왔던 학생들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선생이 나한테 이런 운동을 해보자. 고선생이 친척이고 나한테는 오빠 될 사이니까, 내가 자꾸 신뢰를 했지요. 그 집에도 다니고, 그 선생이 데려다주는 회의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회의입니다.

자신의 활동으로 가족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1948년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다. 신촌리에서는 원당 오름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증언자도 배를 탔는데 조천 중학원 교사였다가 무장대 총사령관이 된 이덕구가 와서 호소했다고 한다.

떠나는 이들에게 배 위에 올라서서 한 말에서 당시 교사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일반 민중의 인식차를 알 수 있다.

‘동지들, 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로 있

119) 박찬식, 앞의 책, 2018, 218-219쪽.

120) 박찬식, 앞의 책, 2018, 207-218쪽.

121)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교육계 4·3 피해실태』, 2018, 91쪽.

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왜 지금 도피해야 하느냐? 다 내려오라, 다 내려 오라!’

‘인제 동지들은 두 번 다시 조선 땅, 제주 땅에는 못 온다. 이름을 지우 겠다. 도피자다!’

라는 것이었다.¹²²⁾ 그의 말에서 반탁과 찬탁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시기에, 일제가 물러가고 또 다른 제국이 나라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보인다. 하지만 일반 민중들은 국가의 정세나 사상보다는 고난희씨처럼 자기들과 인간적으로 호감이 생기고, 신뢰가 가는 이들의 주장과 활동에 자연스레 동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³⁾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에 배제된 이덕구나 김대진 같은 경우를 보자. 이덕구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을 나와, 해방 직전 일본군 징병을 갔다. 해방 후 제주도로 돌아와 조천중학원 사회 교사를 했다. 그의 조카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후 사회 공부를 시키면서 조선 독립됐다고 해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것으로 공산당 취급받아, 경찰에 끌려가곤 했다고 한다.¹²⁴⁾

신촌국민학교의 교사였던 김대진은 함덕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45년 신촌국민학교 세우면서 책임자로 왔다. 김대진 딸인 김낭규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할 당시에 우리 집에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등사판으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작은 방 하나 천장에 꼭 찰 정도였지.

‘신탁 권리(통치) 절대 반대’하고 이모가 나 손 잡고 큰물 가름에까지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새벽에 만세 부른 걸로 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신탁통치하면서 4·3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4·3 이후 학교 선생님들도 그만두고, 학교도 문 닫아버리고, 아버지네도 숨으러 다니기 시작했다.¹²⁵⁾

122)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증언 채록집』, 2003, 10-19쪽, 고난희씨의 증언.

123) 제주 4·3연구소, 『4·3증언자료집2-이제사말핍수다』, 33쪽.

124) 제주 4·3연구소, 앞의 책, 2009, 259-283쪽, 이덕구의 조카 이복숙씨 증언.

125) 제주 4·3연구소, 앞의 책, 2009, 74-95쪽, 김대진의 장녀 김낭규씨 증언.

라고 한다. 해방 직후 학교 교사였던 지식인들은 각자의 정치적 소견을 가지고 기대하던 조국의 모습이 있어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민족항일운동의 맥락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해방 후의 사회에서 민족과 반민족, 동지와 도피자로 시대를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 또 그들은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의 경찰들과 함께 통치하고, 신탁통치가 결정되는 과정, 남한 단독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민중을 설득시켜 과거의 3·1운동을 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천김씨 집안의 해방 후의 상황을 살펴보자. 1947년 청년동맹이 민청 제주도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젊고 진보적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다. 김은환이 제주도 전체의 민청 위원장이었고, 김시범의 사위인 김평원은 김대진, 김완배 등과 함께 조천면 민청 지도부였다. 1947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지도부에서 조천면 위원장이 김시탁이었고, 민청 부장은 김은환이었다. 또한 1948년 남로당 제주도 전체 위원장이 김유환이었다. 김시범은 해방 직후 조천면장을 역임했다.

이들이 해방 직후 정치행정집단에 속해있고, 3·1사건 대책위원회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무장투쟁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김시범은 “북도 싫고 남도 싫고, 시기상조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 봐야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할 뿐이다.”라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항일운동에 앞장 섰던 조몽구, 안세훈, 김유환 등도 항쟁반대파에 섰으며, 심지어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덕구도 박진경에게 꾸준히 협상 제의를 했다.¹²⁶⁾

많은 제주의 지식인들이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한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¹²⁷⁾ 3·1기념 행사 후 적극적 공동체 자기방어를 했던 이들과 적극적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이들은¹²⁸⁾ ‘국민 선택 과정’에서 이미 배제되었다. 조선 말기부터 시기마다 자신의 시대적 과제를 해 왔

126) 제주 4·3연구소, 『4·3증언자료집2-이제사말씀수다』, 1989, 42-43쪽.

127)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증언채록집』, 2003, 28-31쪽, 김가희씨 증언.

128) 김창후, 앞의 책, 2017, 111쪽

던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김시범은 함덕 원당봉에서 희생당했고, 자녀들 중 어떤 동기에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투쟁하는 편에 섰던 추환, 언환, 옥희 등은 모두 다 희생되었고, 장남인 상환은 일본을 거쳐 북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 외 가족들도 연좌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밀항해 현재도 그 후손이 재일조선인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V. 결론

지금까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대적 변환기를 제주의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조선 말기 제주 조천지역 유림의 학맥을 살펴 보았다. 유배 온 성리학자와의 교유관계를 통해 그들의 사상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조천지역 주요 유림들의 가계와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사상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김해김씨 삼현파 이동 문중(조천김씨)의 가계를 조선 말기부터 미 군정기까지 정리하여 이들의 민족운동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려 하였다. 물론 가계 내에서의 유연성,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선택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계 내에서의 운동 형태의 변화과정 이해는 조선 말기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의 제주 지식인들의 선택의 일부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제주 유림들은 한 학파의 사상에만 함몰되지 않았다. 그들은 유학, 근대교육, 종교 등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제국의 침탈이 심해졌을 때 그들의 위정척사·의리론적 학풍은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침투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유학을 공부한 1세대 민족 항일운동이 조천만세운동이었다면, 조천만세운동을 경험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2세대 민족운동을 이끌어 갔다. 1900년대 초 유학을 통해 근대교육을 받은 이들은 제주로 돌아와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립학교, 개량서당 설립 등의 교육 운동과 계몽 운동에 열심을 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항일운동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앞에서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림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위원회 활동을 한 인물까지 조천김씨 한 집안의 가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제주도 내에서의 이들의 운동 형태의 변화를 당면한 엄혹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성리학이 육지의 성리학과 달리 탄력적이고, 융합적이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 연구도 더 필요해 보인다. 제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1923년 이후 제주오사카 정기항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의 자주항로운동이나 민족언론운동 노동자의 권익 운동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1935년 즈음에 이르면 일본에서의 제주민의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과 제주의 사회주의운동의 조우와 교류는 일제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제주의 지식인들은 광복 후 새로운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조선 정부의 출륙금지령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제주의 지식인들은 근대 이후 짧은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많은 선학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것처럼 분단국가의 배경, 4·3 학살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4·3의 배경을 살필 때,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맥락 속에서 제주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조선 말기의 유림들의 사상과, 조천만세운동,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혹은 공산당 운동, 일본에서의 민족운동 경험과 해방 직후의 인민위원회로 이어지는 맥락은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안세훈, 현경호 등 인민위원회에서 주요 직위에 있거나 1947년 3·1 집회와 3·10 총파업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몇 인물들도 일제강점기부터 항일민족운동을 해 왔던 인물들이었

다.¹²⁹⁾

물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항일운동과 4·3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4·3의 발발 원인을 주로 해방 후부터 주목했던 것에 더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저항운동을 4·3과의 연결선 상에서 보는 것도 차후 4·3 당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제주도의 4·3의 배경을,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상적 맥락이 아닌 가족과 친족의 맥락에서 풀어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129) 박찬식, 앞의 책, 2018, 218-219쪽.

참고문헌

〈자료 및 기사〉

-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동아일보』, 『대한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민중시보』
 『金海金氏 三賢派 諱福模派譜』
 『농은문집』, 김문주 저, 북제주문화원, 2004.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저, 김영길 역, 제주문화원, 1996.
 『면암집』, 최익현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7.
 『속음청사』,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해은문집』, 김희정 저, 백규상 역, 제주문화원, 2015.
 『혁암산고』, 김형식 저, 오문복 역, 북제주문화원, 200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 110-제주 어도 진주강씨, 조천
 김해김씨,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金玟奎, 『조천읍지』, 1991.
 『阜天誌』, 제일인쇄사, 1976.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조천읍 역사문
 화지』, 2011.
 제주교육박물관, 『우리학교 공덕비 이야기』, 2017.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문화원, 2005.
 김찬흡,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2016.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 『재일제주인 4·3
 증언 채록집』, 2003.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교육계 4·3 피
 해실태』, 2018.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단행본〉

- 곽신환, 『우암송시열』, 서광사, 2012.
 김창후,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진인진, 2017.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합본개정판)』, 한홍구 옮김, 돌베개, 2015.
- 박찬식, 『4·3과 제주 역사(개정 증보판)』, 각, 2018.
- 부만근, 『제주 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 윤영선, 『조선유현연원도』, 태학사, 1985.
- 제주4·3연구소, 『4·3증언자료집1-이제사 말함수다』, 1989.
- 제주4·3연구소 편, 『그들 속의 4·3』, 선인, 2009.
- 高誠晩, 『<犠牲者>のポリティクス』, 京都大學學術出版会, 2017.
-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垂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연구논문〉

- 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9,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강동호·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연구」, 『탐라문화』 48, 탐라문화연구원, 2015.
- 김동전, 「濟州人の 3·1運動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동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김동현,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2019.
-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韓國漢文學研究』 53호, 한국한문학회, 2014.
-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지식인 심재(心齋) 金錫翼의 시문학 고(考)」, 『溫知論叢』 Vol. 48, 온지학회, 2016.
-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해은(海鵝) 김희정(金羲正)의 삶과 문학」, 『탐라문화』 54, 탐라문화연구원, 2017.

- 김일우, 「조선후기 이후 제주 김희정 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 김찬흡, 「정의현감 김문주 가문에 대한 관견」, 『농은문집』, 북제주문화원, 2004.
-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1-」, 『한국교육사학』 6, 1984.
- 성주현, 「대한협회의 민권의식과 근대 민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9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양진건,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24, 2002.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역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민족지평』 제2회, 민족지평사, 1990a.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아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1990b.
- 최병택, 「1920~1930년대 제주도 지역 보통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특징」, 『탐라문화』 51, 탐라문화연구원, 2015.

〈학위논문〉

- 김항구, 『大韓協會(1907~1910)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양진건,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애림, 「조선노동공제회의 활동과 이념」,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신소연, 「일제강점기 金文準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참고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index.do>

총독부관보 시스템 <http://gb.nl.go.kr/>

공훈전자 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dataType=01>

ABSTRACT

Changes in the form of the modern national
movement in the Jocheon region of Jeju

Shin, So-yeon *

Under the great virtue of making Jeju an 'Island of peace and coexistence', it is easy to cover the conflict and tragic nature of the 4·3 outbreak, which is intertwined with complex issues.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not to be absorbed in merely revealing who the victims are. Most of the 4·3 studies so far limited the time period for 4·3 from around 1947 to the time when the ban on entry to Mt. Halla was lifted in 1954.

This sort of disconnected period division hinders attempts to consider the activities of the 4·3 incident related persons, especially the militia groups of Jeju or those who helped them, or to explore their inten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Island during the late Joseon and Japanese occupation was linked to political activities immediately after independence of August, and some of them became victims of the 4·3 incident.

In particular, the reasons for the review focusing on the Jocheon region and the Jocheon Kim's Family are as follows. First, the Jocheon Manse Movement started centering on them, and a large number of national anti-Japanese activists were produced from the descendants of these families. Second, activists from the Jocheon area, such as Kim Myung-sik,

* Ph.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Koh Sun-heum, and Kim Moon-jun,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each other, and each stood out in the early socialism, anarchism, education and labor movements of Jeju Island and influenced many youths in Jeju. Third, since the 1920s, the activities of the Jocheon branch of the Jeju Youth League were prominent among the entire Jeju region.

The youth movement,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and the Shinjwa(Jocheon) consumption association were the focus of the consumer union movement, the operation of the Shinjwa library, and the labor night school were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Japanese police observed them. Finally, looking at the situation of protest rallies and demonstrations by towns and villages after the March 1st firing incident in 1947, the first street demonstration started, the number of people attending the demonstration procession in Jocheon-myeon reached 2,000 to 3,000, and Jocheon Middle School teachers and activists from Jocheon were specially target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army and police at the time of the 4·3 incident.

To this end, The types of social movements of the characters were classified by generation, centering on the Jocheon Kim's Family. In Chapter 2, the origins of the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in Jocheon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led anti-Japanese activities such as the Jocheon Manse Movement, were found in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scholars in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pter 3 examines how the ideology of Confucian scholars has been connected and changed to future generations by analyzing the descendants and disciple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Jocheon reg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Chapter 4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Jocheon region activists from the 1920s to the US military rule after liberation by examining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the Jocheon Kim's Family.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resistance personality of this

region is connected to the academic vein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cheon Manse Movement, the school establishment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labor movement in Japan.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Jocheon Manse Movement, the basic ideology of the resistance movement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socialism. The subject also changed from Confucian scholars to young intellectuals who studied modern universities. However, the national spirit continued unbroken from sons and grandchildren, from teachers to disciples.

Of course,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intellectu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occurrence of the 4·3 incident.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mainly on the post-liberation period,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spirit of Jeju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istance movement between Jeju and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4·3 Incident. These efforts will help understand the contemporary choices of the militia groups of Jeju with a complex spectrum.

Key-words: Jeju Anti-Japanese Movement, Jeju Socialist Movement, Jocheon Confucian scholar, Exile, 4·3 background

논문투고일 2021. 2. 14.

심사완료일 2021. 3. 9.

게재확정일 2021. 7. 23.